

앞으로 한동안은 '스파이더맨' 천하



개봉과 동시에 흥행성적 압도적 1위

MCU 작품 중 국내팬 특히 선호 작품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2일 개봉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일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67만4698명을 극장으로 끌어당기며 '알리딘'을 제치고 1위로 올랐다. 누적관객수는 72만7264명이다.

개봉 이래 줄곧 1위를 수성해 온 '알리딘'은 같은날 7만2410명을 추가해 2위로 밀려났다. '알리딘'의

누적관객수는 84만5916명이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MCU 작품 중 국내팬들이 특히 선호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주역 톰 힐랜드(23)와 제이크 질렌할(39)이 개봉 직전 한국을 찾아 팬들과 소통하고 기분 좋은 선물을 남기고 떠나 영화에 대한 관심은 개봉 전부터 고조됐다.

이러한 관심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개봉 전 예매율이 80% 까지 치솟도록 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엔드게임' 이후 변화된 일상에서 벗어나 학교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힐랜드)가 정체불명의 조력자 미스테리오(제이크 질렌할)와 세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빌런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편, 2일 기준 박스오피스 3위는 3만5761명을 추가한 '토이 스토리 4', 4위는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기생충'이 차지했다. '기생충'의 누적관객수는 964만명이다.

뉴시스

류준열·유해진, 영화 촬영장은 웃음바다

코미디에 능한 배우들 모인 탓 웃음 끊이질 않아

코미디에 능한 배우들이 모인 만큼, 영화 '봉오동 전투'의 촬영현장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팀워크를 묻는 질문에 유해진(49)은 "좋다. 류준열이 중심인 것 같다. 각각 '택시운전사'에서 나를 만나고, '돈'에서 조우진을 만났다. 만나면 현장 분위기를 잘 살린다. 우스갯소리를 잘 하더라. '택시운전사' 당시에는 잘 몰랐다. 이번에 촬영을 길게 하면서 (그런 면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류준열(33)은 "사실 대부분 분위기는 유해진 선배님이 아끌었다. 저도 거들고 싶어서 하나씩 특별히 던지면 선배님이 깜짝깜짝 놀리는

데, (웃긴) 내색은 잘 안 하더라"고 전했다.

유해진은 "그때는 나도 분발해 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자극이 됐다"며 웃음을 이끌어냈다.

류준열은 "내본(현습)보다 개그를 더 준비하기도 했다. 내가 준비해서 하나씩 던지면, 유해진 선배님이 '좋았어'라고 가끔 말해주기도 했다. 그러면 조우진 선배님이 쑥 하나(개그를) 던지면 엄청 터질 때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할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봉오동전투' 제작보고회에서 배우들이 사회자인 박경림의 "배우들이 서로 닮았다"는 말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영화 '봉오동전투'는 오는 8월 개봉한다.

의 전투를 그린 영화다. 3명의 주연배우 외 이케우치 히로유키(43) 가 참여했다. 8월에 개봉한다.

뉴시스

오창석 ♥ 이채은 열애...“결혼은 아직”

연애의 맛 2호 커플

탤런트 오창석(37)이 유치원 교사 출신 모델 이채은(24)과 열애 중이다. TV조선 예능물 '연애의 맛'에서 만나 애인관계로 발전했다.

오창석과 이채은은 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섰다.

오창석은 관중 앞에서 프리포즈를 했고, 이채은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구 전 오창석은 "이채은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실제 연인이라는 말이냐 아니면 방송 연인이라는 말이냐고 물었고



오창석은 "공식적으로 연애를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키스티임에서 오창석은 이채은의 이미에 뾰뽀하며 달콤한 장면을 연출했다.

오창석의 소속사 PF컴퍼니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교제 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연애의 맛' 촬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겼다. 아직 결혼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다.

이브의 모든 것·마지막승부·M·국회 등

"옛날 MBC 드라마 다시 보여줍니다"

MBC온이 시청자들이 요청한 '보고 싶은' 드라마와 예능을 방송한다.

MBC온은 '5~6월 홈페이지로 진행한 시청자 드라마 예능 소환 이벤트' 결과 드라마와 예능 1000여편

을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신청 받았다"며 "3일부터 출연자 및 방송심의에 제한을 받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드라마와 예능에

서 상위 5위권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이브의 모든 것'(2000), '마지막 승부'(1994), 'M'(1994), '사랑을 그대 품안에'(1994), '국회'(1999), '진실'(2000)이다.

예능은 '하이킥' 시리즈(2006~), '무한도전'(2006~), '안녕 프란체스카'(2005), '아빠 어디가?'(2013~), '이경규가 간다'(1996~)다.

사랑을 그대 품안에'와 마지막 승부' 등 90년대 작품은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선명한 화면으로 선오일 예정이다.

3일 낮 4시 '시랑을 그대 품안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을 시작으로 매주 목~금요일 밤 11시30분 '시청자 초이스: 예능 존', 월~수요일 오후 4시 '시청자 초이스: 드라마 존'이 방송된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쥐

소띠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삼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

